



電子産業의 새로운 跳躍을 위한 한해

金 泰 俊 / 商工部 電子電機工業局長

지난 85년은 우리의 電子産業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다. 先進各國에서의 電子製品需要의 減退와 半導體 價格의 하락, 漸高되어 가는 保護貿易 障壁과 開途國에 대한 市場開放 壓力 등 많은 어려움이 加重되었던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 與件 惡化로 작년의 電子産業의 성장은 生産 基準으로는 1.5% 증가한 84億弗, 輸出은 2.7% 증가한 47億弗 수준에 머무르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希望을 안겨 준 것은 國內 電子業界의 부단한 研究開發 의욕과 끈질긴 市場開拓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半導體部門에 있어서는 어려운 市場與件 속에서도 1M ROM, 64K SRAM 등 超高集積 半導體 開發의 개가를 올렸으며, 아울러 256K DRAM의 量産体制 突入에 따라 이 部門에서 先進國과의 격차를 1~2年으로 短縮시킬 수 있었고, 16Bit 퍼스컴을 비롯한 컴퓨터 및 周邊機器의 本格的 輸出로 美國 및 유럽市場에서의 주요한 컴퓨터 輸出國으로 浮上할 수 있었다는 것은 電子産業 發展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音聲多重放送 실시에 따른 音聲多重TV의 開發 및 普及이 擴大되고 Digital TV, 小型 液晶TV 등의 開發에 의한 새로운 輸出戰略이 摸索되고 있으며, VTR이 작년에 처음 輸出됨에 따라 家電製品 輸出版圖의 큰 變化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작년 한해는 어려운 國內外 市場與件으로 電子産業의 外形의 成長은 기대했던 만큼 達成되지 못한 것이나, 새로운 跳躍을 위한 基盤을 착실히 닦은 해라고 할 수 있다.

今年的 電子市場 與件을 概觀해 보면 작년에 가장 어려운 部門이었던 半導體市場의 漸進的 需要供給의 均衡 회복과 價格의 安定化 추세로 安定操業의 與件이 造成되어 가고 있고, 컴퓨터 및 各種 事

務機器, 高品位TV, DAD 등 새로운 尖端機器에 대한 需要 擴大가 이루어지고 있어 全般的인 市場與件의 改善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円貨의 高評價 지속으로 우리의 輸出價格 競爭力이 크게 向上되어 美國·日本 等地에의 輸出環境이 크게 改善되는 등 작년에 비하여는 市況이 好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今年은 80年代 後半期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電子産業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중요한 意味를 지니는 한해로 생각된다. 全般的인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라 이제 電子産業이야말로 名實相符한 第1産業으로서의 跳躍을 위한 準備를 다져야 할 때인 것이다. 또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情報化社會를 이끌 核心産業으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제 今年 한해를 시작하면서 電子産業의 發展을 위해 企業과 政府가 관심을 가지고 推進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우선, 前年度의 不振한 輸出實績을 타개하기 위한 輸出 努力이 더욱 強化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今年度 電子産業(家庭用電氣 包含)의 政府측 輸出目標은 前年對比 23% 증가한 58億弗로 策定되었다. 이는 前年の 輸出增加率 水準에 비하여 다소 부담이 되는 목표이나, 80年 이후의 平均伸張率과 今年度에 輸出與件이 다소 好轉될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무리한 目標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先進國의 輸入規制 障壁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을 直視할 때 우리의 輸出戰略은 이제 새로운 次元에서 再點檢되어야 하고 向後 100億弗帶의 輸出 實現을 위한 輸出總力体制의 構築이 시급한 課題라고 생각된다.

중핵의 輸出主宗品目 즉 TV, 라디오, 組立半導體, 磁氣메이프 등 비교적 單純技術製品的 輸出競爭力을 持續적으로 높여 나가는 시간에 보다 技術

集約的인 新製品의 開發과 輸出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美國 以外에 歐洲, 中南美, 東南亞 등의 市場多邊化를 적극적으로 推進해야 할 것이다. 이를 實現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海外投資를 통한 現地生産으로 市場據點을 확보해 나가며 새로운 需要 패턴에 付合되는 新商品, 新모델 開發을 위한 研究開發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円貨의 高評價에 따른 價格競爭力 확보의 유리한 機會을 백분활용하여 日本과의 價格競爭 有望品目에 대한 집중적인 輸出努力과 함께 業界間의 共同戰略 樹立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과거 거의 進出이 불가능했던 日本市場에의 접근도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部品 등에 力點을 두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政府측도 輸出에 지장을 주는 各種 制度의 簡素化 努力을 더욱 강화하고 輸出競爭力 증대를 위한 金融·稅制面에서의 效果的인 支援이 이루어지도록 制度補完을 꾸준히 推進해 나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電子産業이 안고있는 가장 큰 課題인 部品 등의 輸入代替가 今年에는 보다 深度있게 推進되어야겠다는 점이다. 年間 電子부품의 輸入規模가 近 23~24億弗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輸入代替의 余地는 다른 어떤 産業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部品國産化의 가장 큰 關鍵은 상응하는 技術의 확보와 함께 經濟規模의 需要 保障이라고 볼 때 이는 部品生産業體 一方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部品를 購買하는 Set 메이커와 部品 메이커間의 共同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만큼 兩業界가 協力하여 國産開發이 가능한 品目を 選定하고 이의 開發을 위한 技術協력과 長期 購買保障 등에 실질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既存의 系列化事業을 보다 內實있게 運營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部品開發協議會를 구성하여 新技術의 開發과 品質向上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政府로서도 이러한 部品開發事業의 必要性을 잘 認識하고 있는 만큼, 電子工業振興基金 등을 통한 開發資金의 支援과 中小企業振興公團 등을 통한 技術指導事業을 擴大 支援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部品業體 共同의 研究開發 추진을 위해 既存의 研究組合 運營의 內實을 기하도록 行政指導해 나갈 方針이다.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重要 課題는 尖端 電子技術의 開發과 産業化의 촉진이라 하겠다. 지금 政府뿐만 아니라 企業, 研究所에서는 이 分野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그간 많은 投資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도 先進國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半導體, 컴퓨터, 通信機器 등은 電子産業의 核心技術分野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成長 展望도 가장 밝은 分野로서 이에 대한 汎國家的 次元의 育成戰略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마침 政府側에서는 이 問題에 대하여 關係部處間의 진지한 討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尖端産業 發展을 위한 政府의 機能에 대한 深度있는 檢討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檢討 결과에 따라 政府는 종래의 産業政策과는 다른 次元에서 尖端産業 分野에 대한 政策支援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産業界에서는 先進技術의 적극 導入과 自体 研究開發 力量의 증대를 위한 R&D投資를 대폭 擴充하여 善意의 경쟁에 의한 技術開發 노력을 加一層 강화해야 할 것이다. 近者에 와서 研究開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全電子式交換機, 光通信 시스템, 近거리通信網, 의료용電子機器, 事務 및 工場自動化機器, 放送機器 등 새로이 開拓되고 産業化되어야 할 分野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政府와 企業이 함께 이러한 分野의 조속한 産業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끝으로 電子産業의 發展을 위하여 今年에는 우리 電子業界間의 協力분위기를 더욱 다져 나야 할 것이다. 앞서 推進되어야 할 課題들은 어느 일개 業體만이 잘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는 없으며 大企業 相互間,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Set業界와 部品業界間의 긴밀한 協力에 의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國內外 市場에서의 過度한 價格競爭의 止揚은 물론 過多廣告의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部品の 共同 開發, 尖端技術 分野의 共同開拓, 市場情報의 交換 등 相互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分野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企業間의 協調분위기 속에서 政府와 企業이 효과적으로 産業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施行해 나간다면 '80年代末에 가서 우리 電子産業이 最先進圈에 도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뭏든 올해는 電子産業이 다가오는 90年代를 向하여 새로이 跳躍하는 한해가 되기를 希望한다.